

송영길 대표 피습·대장동 녹취록 공개 막판 변수 되나

송대표 서울 신촌 선거운동 하다
70대 유튜버에 망치로 가격 당해
“김만배, 윤석열 통해 사건 해결”
녹취록 공개...여야 진위 난타전
여론조작 놓고도 뜨거운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가 하면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난타전을 벌이고 서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선거전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유튜버 A(70)씨로부터 망치로 가격 당했다. 송 대표는 당시 현장에 막 도착해 일행과 함께 이동 중이었으며 한복에 검은색 범퍼차림의 A씨가 달려들어 송 대표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A씨는 바로 현장에서 제압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송 대표는 인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날 일정을 취소하고 안정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계속된 유세에서 “A씨가 망치같이 앞부분이 뾰족한 물체로 송 대표의 머리를 내리찍었다”고 말했다. A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는 지난달부터 송 대표의 선거운동 현장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 한 언론이 대장동 회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부산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들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를 즉각 규탄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날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비판했다. 또 “영원히 감출수 있는 거짓은 없

습니다. 국민이 판단해주시고요. 3월9일 투표로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 후보였음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은 김만배씨 말이 허위이고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하남 유세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 이재명 후보를 겨냥 “정권 바뀌면 김만배 일당이 받아먹은 저 8500억원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날마다 드러난다. 그래서 다시 국민의 주머니로 환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작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각종 커뮤니티와 단톡방 등에서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후보가 초등학교에서 퇴학당했고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식의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후보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녹취록을 다룬 각종 기사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린 것을 지적하며 여론 인사와 지지자들이 제2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도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새벽 여러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인 여론 조작 행위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엄정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형 선대본부 청년보좌관은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받아 공유한다”며 “민주당 선대위 더빠는 미래위원회 주도로 무려 2만2천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지령을 내려 포탈 기사의 댓글과 좋아요, 추천수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비하 막말 국민의힘 선대위 인사 해촉

5·18 부상자에 “거렁뱅이” 댓글
민주 시당 “국힘, 광주혐오 조장”

7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소속 인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광주 시민에 대해 “불쌍한 인생”, “거렁뱅이 인생”, “동물들의 비천한 의식”이라고 폄하한 글을 남겼다 해촉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국민의힘은 끝없이 광주 혐오를 조장하며 광주 시민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특보는 다친 몸을 끌고 거리를 누비며 이변 20대 대선의 중요함을 설파하던 5·18 부상자에 대해 ‘불쌍한 인생들, 거지, 거렁뱅이 인생’이라고 모욕했다. 심지어 ‘전두환이를 닮아간다. 전두환보다 못하다’라며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 실상은 광주 혐오 조장 그 자체였다. ‘광주는 제사의 도시’라는 막말을 한 주동식씨가 국민의힘 서구갑 당협위원장이고, 5·18유공자들이 인민재판으로 죽었다는 천인공노할 막말을 한 극우유

튜버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광주시 환경생태극장 등을 역임한 국민의힘 신광조 직능본부 원전산업지원단 선임부단장 겸 조직본부 공청한라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모씨 페이스북 글에 “오기만 X구둑까지 차가지고 불쌍한 인생들. 거지 거렁뱅이 인생!” 등의 댓글을 남겼다.

그가 댓글을 단 이씨의 페이스북 글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불미스러운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신 부단장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2~3% 차 역전극” 국힘 “오차범위 밖 우세”

여야 엇갈리는 판세 전망 속
막판 중도·부동층 공략 사활

3·9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7일 여야의 선행도 더욱 복잡해진 형국이다. 여야는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접전 속에서도 엇갈리는 판세 전망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에 호소했다.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 총결집에 나서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 선거전 시작 후 오차범위 내 ‘박빙열세’였던 판세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후 ‘깜깜이’ 기간 ‘초접전 동률’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하고, 2030 여성들을 비롯한 부동층·중도층이 이후로 쏠리는 막판 흐름이 상승세로 연결돼 결국 이 후보가 2~3%포인트 차로 역전극을 이끌어낼 것이라 전망했다.

민주당은 50%를 넘는 호남의 사전투표율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기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데다 중도·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수도권에서 이 후보의 막판 지지세가 커지면서 격차가 크게 좁

혀졌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중도·부동층 중 20~30대 여성도 윤 후보의 여성 관련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 후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자체 진단도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수도권 중도·부동층과 2030 세대의 표심을 더 공략하는 데 막판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빙우세’를 유지하던 판세가 3월 들어 오차범위 밖 우세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새벽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성사 후엔 정권교체 지지 여론이 윤석열 후보로 결집하는 흐름이 감지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도 꾸준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벌려, 본투표일엔 최종적으로 두 자릿수 격차의 ‘완승’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도 당내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판세 상 큰 격차의 승리를 예상하면 서도 최종 결과는 본투표일의 투표율에 달렸기 때문에 투표 독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선부른 승리를 장담하는 바람에 중도층·부동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승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ttp://www.greenfuneral.kr/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호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I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협대 350명 장공 등 VIP전 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터 정희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